건강한 교회로의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Photo by ©고경원

조정희 목사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대원(M.Div.)을 졸업했다.
미시간 주 칼빈신학교(Th.M. 신약신학 전공)를 거쳐
칼라마주 한인교회와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으며,
현재 신부산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 중이다.

이민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던 만 39세의 한 젊은 목사에게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로부터 담임목사 청빙이 들어왔다. 인터넷을 통해 그의 설교를 듣고 청빙을 결정했다는 교회의 청빙위원들은 이 젊은 목사에게 꼭 담임목사로 와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교회는 오랫동안 교인들 간의 고소와 고발로 시끄러운 교회였다. 그래서 원로목사가 은퇴한 뒤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담임목사 자리는 공석이었고, 세간에서는 누가 오더라도 그 교회의 담임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팽배했던 교회였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누구나 말리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젊은 목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모든 충고와 상황을 뒤로 하고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 두 가지란 바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축복하는 목사가 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과 오랫동안 사역 현장에서 경험했던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확신이었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마음의 소원을 잃지 않고 제자훈련 목회에 전념한다면, 어떠한 상황의 교회라도 건강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조정희 목사가 신부산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것은 지난 2004년 4월. 처음 조 목사가 부임할 때만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조 목사가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염려하며 걱정했다. 그러나 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때 조 목사를 걱정해주던 사람들은 모두 조 목사를 부러워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누가 보기에도 담임목회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신부산교회가 오늘날 부산 시내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건강한 교회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매 주일마다 새신자들이 등록하고, 그래서 5년 전 400여 명 정도이던 주일 낮 예배 장년 출석수가 800여 명으로 늘어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교계 신문에서 이름을 밝히기 어려워 "S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르내리던 교회가 지금은 "부산시 수영구 광안1동에 위치한 신부산교회"라고 소개되고 있고, 그 내용도 '불신자들에게 열려 있는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 등 그 글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야기로 바뀌었다. 도대체 신부산교회는 어떻게 해서 5년 만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담임목회자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

조정희 목사에게 취재를 요청했을 때, 조 목사는 한사코 거절을 했다. 왜냐하면 5년이라는 시간은 이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라는 것이 조 목사의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교회가 급격하게 변화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뷰를 하다 보면, 꼭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좋아졌다는 식으로 결론을 맺게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아직 두렵습니다. 5년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싸워야 했는지, 사실 속마음을 알고 보면 그만큼 모두 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는데,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성도들은 모두 나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조 목사는 신부산교회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부각시키기 위해 성도들의 과거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 것을 극도로 거부했다. 조 목사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그가 성도들에 대해 갖고 있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옛날 일을 심판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옛

날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걸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바로 가기 위해 왔으니까 앞으로 제게 옛날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면 무조건 전화도 안 받고 만나지도 않겠습니다. 단, 자기 잘못을 고백하러 오는 분의 이야기는 듣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러 오는 분은 절대로 만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여러 사람들이 제게 전화를 걸고 찾아와서 이 사람이 어쨌네, 저 사람이 이랬네 하면서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라면 안 듣겠다고 했지요' 라고 하고선 바로 대화를 끊었어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성도들 사이에 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만큼 깊이 패여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은 조 목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럴 때 제가 성도들에게 휩쓸려서 이 이야기 들어주고, 저 사람 편들어주고 하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오기 전에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성도들을 축복하러 간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건 그를 축복하고, 그들은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한다' 는 생각 말이지요. 그래서 교회 요람을 들고 무조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눈 뜨고 그 사람 사진 보면서, 이름 불러 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분쟁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 모두를 위해 매일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 얼굴만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걸 저 스스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싸워도 속상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두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저러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 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 1~2년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취재하는 내내, 조 목사는 과거의 이야기를 기사화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신부산교회에서 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분열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던 교회였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로 장로와 안수집사 등 17명이 직분을 사임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렇다고 남아 있는 성도들끼리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의견충돌이 일어나기 일쑤였다. 게다가 원로목사의 은퇴 이후 새로운 담임목사의 청빙이 계속 늦어지면서 성도들은 하나둘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줄어들면서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를 갚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재정 상황은 나빠졌다. 성도들이 '교회 부도나는 거 아니냐?' 며 걱정을 할 정도였다.

이런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을 받으면 누구나 이 교회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가름하고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조정희 목사는 과거의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신부산교회가 자신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가 되길 원했다.

목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심을 지키라

새로운 교회로의 새 출발을 위해 조정희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교회의 훈련 시스템을 새로 세우는 것이었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조 목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훈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에 목회의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부임하자마자 무조건 새가족 모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제자훈련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지요. 부임 후 3년 동안은 새가족 모임과 양육훈련, 제자훈련 등 교회의 훈련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저의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개척 교회를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완전히 새로 시작했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제 마음을 쏟고,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가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이지요.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들 자신이 갖고 있는 비방과 불만을 새로 온 담임목사에게 얘기하고 싶어 했지요.
어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제가 어느 새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집중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조 목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훈련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훈련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둘째는 훈련목회에 집중해야만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제 마음을 쏟고,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가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이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들 자신이 갖고 있는 비방과 불만을 새로 온 담임목사에게 얘기하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제가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제가 어느 새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집중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당회가 풀려야 모든 것이 풀린다

새로 온 담임목사가 훈련 목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 목사는 당회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처음 청빙 받을 때부터 그게 조건이었어요.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제자훈련의 맛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담임목회를 시작하는 저의 조건은 제자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도 새가족 모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다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회원들은 자연스럽게 새가족 모임부터 양육 훈련과 제자훈련, 사역훈련 등 신부산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의 1기 수료생이 되었다. 조정희 목사는 당회원들이 모든 훈련을 수료할 때까지 약 3년의 시간 동안 모든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인도했다. 거의 2년 동안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당회원들과 주일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그만큼 조 목사는 당회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조 목사의 마음과는 달리, 한번 닫힌 당회원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내적으로는 미묘한 갈등이 당회원들 안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로 절대로 얼굴을 마주보지도 않고 서로의 의견에 반대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리 큰 문제도 아닌데, 감정이 상해 있다보니 서로를 이해하거나 용납하려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겁니다."

조 목사는 위기감을 느꼈다.

"신앙인격의 전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훈련은 결국 형식적인 훈련이 되고 말지요. 1기가 그러면 그 뒤의 훈련도 불보듯 뻔한 겁니다. 제자훈련은 하고 있지만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당회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위기감도 느꼈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을 해결할만한 뾰족한 답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서로 감정적으로 상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고개를 숙이는 것 빼고는 해결점이 없었다. 그렇다고 조 목사가 어느 한 사람에게만 고개를 숙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두 사람 모두를 잃게 될 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 놓으며 그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막 담임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목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당회원들의 마음의 벽이 한 순간에 허물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특새를 통해서였다.

"2차 특새 주제가 '주여! 새 마음을 주소서' 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자' 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메시지를 마치고 기도할 때에도 성도들의 모습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다 싶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장로님이 제게 찾아오신 겁니다."

조 목사는 그 순간을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 장로가 울면서 자신이 그동안 마음 속에서 미워하고 적대시했던 장로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일이라곤 정말 기도하고 훈련에 집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풀기 힘들었던 문제가 기적적으로 풀린 겁니다."

그때부터 당회는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감정의 골이 해결되고 나니, 훈련의 효과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당회원들의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훈련 시간은 서로의 얼굴을 한번도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침묵만 흘렀지만, 그 이후부터 당회 제자훈련 시간은 웃음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당회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는 말이 나돌았다.

이처럼 당회가 살아나자 교회 전체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간의 상처와 아픔이 언제 그랬냐는듯이 눈녹듯 사라지고 신부산교회는 하루 아침에 새로운 교회로 변하게 된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조정희 목사는 이렇게 고백한다.

"우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때 말씀듣고 결단해서 자신이 먼저 마음 문을 열어준 그 장로님께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때 그 장로님께서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려는 용기를 보여주심으로써 당회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지요."

조정희 목사는 이 사건을 통해 목회는 당회가 풀려야 모든 것이 풀린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당회원들이 자신의 목회에 귀한 동역자이며 좋은 지지자들이 되어주고 있다고 자랑했다. 조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언젠가 제가 한 장로님께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냐?' 고 여쭤봤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원로목사님께 잘못한 것이 너무 죄송해서 새로운 담임목사님께는 잘 도와드리는 장로가 되고 싶다고요. 이런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니까 저희 교회가 이렇게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주도권을 성도들에게 넘겨주라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당회원들은 교회의 모든 면에서 변화를 주도해갔다. 특히 당회원들 스스로 권위의식을 버리면서 신부산교회는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열린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와 같이 전통적인 교회들은 예배당 맨 앞에 당회원들만 앉는 좌석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는 장로님들이 모두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9시에 예배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예배를 나눠서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인가 11시 예배에 장로님이 한 분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분도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당회원들에게 '왜 아무도 없느냐?' 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몇 명은 1부 예배에 참석하고, 몇 명은 봉사 때문에 못 앉고, 어떤 분은 회사 일로 출장 가서 못 왔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니까 장로님들이 서로 상의해서 아예 당회원석을 없애자고 결의를 해서 자리가 없어졌어요."

예배당에서 당회원 좌석 없어진 것이 뭐 그리 큰일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를 실감한다. 가령 새로 부임한 담임목사가 예배당에 있는 당회원들의 좌석을 임의로 옮기거나 없앴다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것을 당회를 무시하거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산교회와 같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당회원들 스스로 당회원석을 없앴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원래 신부산교회에서 가장 넓은 사무실도 당회원들이 모이는 방이었다. 그런데 당회원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그 자리를 교역자실과 바꾸었다. 그리고 그렇게 맞바꾼 방의 이름을 '회의실' 이라고 바꾸고 누구나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조정희 목사는 "아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라고 했다. 소위 부산의 정치 1번지라 불리던 신부산교회의 당회원들이 이렇게 바뀌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조 목사의 설명이다.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새로 부임한 담임목사가 예배당 중앙에 있는 피아노를 구석으로 치웠다가 바로 쫓겨났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리더들이 변하면 변화의 속도는 그만큼 빨라지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 리더 한 사람에 의해 진행되는 변화보다는 리더 그룹 전체에 의해 진행되는 변화가 더 빠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새로 담임목사로 부임해서 보면 바꾸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정희 목사는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 늦은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조 목사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조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담임목사가 새로 교회에 부임하면 마음에 안 맞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채 움직이기 전에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변화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본질을 강조하면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대신 스스로 따라올 때까지 판단하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 담임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담임목사가 주도하는 변화가 아니라 성도들이 주도하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빨리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큰 그림을 먼저 그리게 하고 속을 채워가라

전통적인 교회에서 훈련 목회를 접목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소그룹 시스템의 전환이다. 조정희 목사도 마찬가지였다. 훈련 목회와 귀납적 소그룹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데,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귀납적 소그룹에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교회에서 훈련 목회가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귀납적 소그룹을 인도할 만한 리더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세우느냐에 달려 있고, 조 목사는 부임 초기 3년 동안 바로 그것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기존 리더들을 대상으로 했던 작업은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소그룹이 살아 있는 교회로 만들고 싶다. 소그룹이 살아 있는 교회가 되려면 소그룹 리더의 역량이 그만큼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여러분이 그 훈련을 마치고 순장이 되면 마치 목사처럼 순원들을 섬기고 목양하는 리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거의 매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든 2007년 말까지 제자훈련을 마쳐야 한다고 했죠. 제자훈련을 안 받으면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아예 못 박았습니다. 2004년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3년이라는 시간을 준 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리더로 서지 못한 분도 마음에 서운함이 없는 거예요."

조 목사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흔히 목사님들 중에 소그룹 시스템만 바꾸면 교회가 확 바뀔 줄로 아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그룹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리더가 바뀌어야 합니다. 리더가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지요. 문제는 목회자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리더가 바뀔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스템만 바꾼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그 3년 동안 조 목사는 어떤 식으로 리더들을 훈련시켰을까?

"먼저는 소그룹을 자꾸 경험하게 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서 소그룹을 경험하게 했어요. 새가족 모임도 그렇고, 양육 훈련도 그렇고, 심지어 크로스

웨이 성경대학을 할 때도 강의 마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느낀 점과 소감을 나누도록 했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학기를 마치고 평가서를 받아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소그룹 시간을 줄이든가 없애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소그룹에 대한 경험이 점점 쌓이면서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2008년 1월, 조정희 목사는 신부산교회의 소그룹 시스템에 변화를 주었다. 기존의 구역 스타일의 모임에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귀납적 성경공부 소그룹으로 변화한 것이다.

"우리 교회에 가장 맞는 소그룹이 어떤 스타일인지 찾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사역과 관련된 여러 세미나에 참석했지요. 하지만 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귀납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조 목사는 순장반을 다시 소그룹으로 나눴다. 그리고 순장반 소그룹에서 아예 그 교재를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갖는 시간을 갖게 했다. 조 목사가 가르치는 것은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적하고, 4~5명씩 모인 순장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질문을 던지면서 나누게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던 것이다. 그런 반응은 조 목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저한테 특별히 배우는 것도 없는데 순장반에 참석하는 것이 도움이 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꼭 참석해야 한대요. 수요예배는 못 와도 순장반은 꼭 와야 한다더라고요. 순장반에 오지 않으면 인도할 자신이 없대요. 순장반 소그룹에서 말씀을 가지고 한 번 은혜를 나누고, 자기가 인도하는 순모임에서 또 나누니까 은혜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는 순장반의 출석률은 보통이 90%를 넘고, 100%인 날도 허다하다. 남자 순장들도 이 시간에 참석하는데, 출장을 가는 일이 아니면 늦더라도 순장반에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 목사 자신도 놀라고 도전을 받는다고 한다.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역량을 갖춘 소그룹 리더가 준비되면서 소그룹 사역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참여율의 증가였다.

"2008년 소그룹 참여율이 약 40%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소그룹 참여율이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3년여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008년에 소그룹 시스템을 구역에서 다락방으로 바꾸면서부터 사람들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50%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2008년과 2009년의 교회 사이즈가 다른 점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변화이지요.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약 100명이 더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조 목사는 교회의 모든 것이 다락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다음 목표라고 했다.

"가령, 성도들을 소개할 경우에도 예전에는 '모 전도회 모 집사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지금은 '모 다락방 모 집사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철저하게 다락방 중심이 되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다락방에 소속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다락방에 소속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줘야 합니다."

조 목사의 이런 생각은 7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 70세가 넘으면 소그룹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설령 참여한다고 해도 다른 젊은 순원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그런 분들은 함께 모아서 노인대학 식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는 그런 노인대학(신부산교회에서는 노인대학을 실버대학이라고 부른다)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다락방을 편성해서 오전에는 다락방으로 모이고, 오후에 실버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이 100명이 넘어요."

조 목사는 신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에 소속되어 소그룹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싶다고 했다. 소그룹이 갖고 있는 효과와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조 목사였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작년에 다락방을 처음 시작하고 난 뒤부터 크로스웨이 성경공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그룹 시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 시간에 쓸데없는 이야기만 해서 시간이 아깝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나눔의 시간을 더 많이 달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눔'이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람들마다 '나눔'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그룹 사역이 정착됐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목사는 다락방 사역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교회의 모든 사역이 원활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식당 봉사이다. 전에는 전도회별로 주일 식당 봉사를 했는데, 봉사하는 인원도 적었고 젊은 사람들이 할 때는 봉사 인원이 없어서 다른 전도회가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다락방별로 봉사를 하면서부터는 오히려 봉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늘고, 심지어 남자 성도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봉사에 참여하더라는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다들 '잘 되겠나'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완전 기우였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얼굴도 모르던 분들이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깜짝 놀랍니다."

변화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지난 5년 간 신부산교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원칙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목회자로서 바르게 중심을 잡은 조정희 목사는 신부산교회를 결국 새로운 교회로 바꾸어 놓았다. 처음 부임할 때만 하더라도 400여 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5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연령이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젊어졌다는 사실은 이 교회가 얼마나 열려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조정희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교회는 분명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거의 매주마다 새가족이 등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다. 지난 5년 동안 신부산교회에 새로 등록한 성도들 중에 70%가 '자진'해서 등록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조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나다 보니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등록한 분들 대부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교회로서도 해결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교회가 건강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것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들이 등록하는 경우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조 목사는 "제자훈련의 목표는 영적 재생산의 능력을 갖춘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은 누구나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 목사의 생각이다. 따라서 제자훈련을 통해 영적 재생산의 능력을 갖춘 평신도 지도자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신부산교회도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 추수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의 변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도 물론 대단한 것이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는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출발에 불과하지요.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지금보다 10년 후, 20년 후에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정희 목사는 지난 5년 동안 신부산교회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하지만 조 목사가 훈련 목회에 대한 확신과 영혼을 축복하려는 마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회하겠다는 소신과 원칙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도 과연 신부산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목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하지만, 그 목회를 책임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담임목회자의 몫이다. 신부산교회의 이야기는 변화가 필요한 교회에서 담임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지금 교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번 현장이야기가 좋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한다.

〈박순종 목사〉

INTERVIEW 1

"솔선수범하는 목사님의 뒤를 따를 뿐입니다"

– 정영준 장로

1985년에 신부산교회에서 장로장립을 받은 정영준 장로는 그 누구보다도 신부산교회의 변화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과거에는 교회 내 모든 행정 업무를 결정하거나 감독, 지시하는 일이 당회원들의 주 업무였다면, 지금은 섬기고 힘쓰는 일이 당회원들의 주 업무가 되었습니다. 주차 봉사나 식당 봉사, 교회 청소 등 힘이 필요한 일도 마다치않고 당회원들이 앞장섭니다. 당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도 이전에는 서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느라 소모적인 부분이 많았다면, 지금은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나누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정 장로는 이런 변화가 비단 당회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당회원들뿐 아니라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변했다고 봐도 될 겁니다. 예전에는 섬김을 꺼려하고 가급적 피하려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들이 변화되니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금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정 장로는 그 원인을 이렇게 증언한다.

"일단은 제자훈련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그런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담임 목사님의 솔선수범하는 모습 때문이었지요. 조 목사님은 섬김에 사랑과 겸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랑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입양하시고, 재정에 대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교회일로 출장을 다녀오시면 재정을 아껴서 사용하시고 남은 비용은 꼭 반납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당회원들 모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목사님에 대해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지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목사님의 성실함에서 우리 모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목사님이 강조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INTERVIEW 2

"훈련을 통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 문영석 집사

교회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개인적으로 교회 밖에서 실시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문영석 집사. 그래서 조정희 목사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프로그램을 자신 있게 소개했던 그도 제자훈련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 새로운 사람이 됐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은혜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유익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제 정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훈련은 개인적 필요에만 관심을 가졌던 신앙에서 벗어나,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제자훈련을 통해 신앙생활의 관심 분야가 달라진 것이지요."

INTERVIEW 3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 이한덕 안수집사

이한덕 안수집사는 교회가 분열되어 아픔을 겪었을 때, 신부산교회를 잠시 떠났던 사람이다. 그러나 조정희 목사가 부임한 후 놀랍게 변화되는 신부산교회의 모습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교회로 다시 돌아온 그는 70세의 늦은 나이에 제4기 제자훈련에 지원했다.

"남들은 이제 은퇴할 나이에 무슨 훈련이냐고 하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70을 넘긴 나이에 받은 훈련이 힘들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이 집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암기 같은 숙제는 힘들었지요. 처음엔 따라가기가 좀 벅찼습니다. 하지만 이내 집중해서 노력하니까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제자훈련을 통해 가장 변화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좀 더 일찍 훈련받고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면 제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훈련을 받기 전만 하더라도 저는 자기만족에 빠져서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에 감동이 없었지만 지금은 생각만 해도 예배가 감격스럽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이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신앙생활의 참맛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을 지내고 있다는 이한덕 집사. 그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며 오늘도 주차 봉사로 섬기고 있다.

"70세가 넘은 사람이 주차 봉사를 하면 다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문 집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전에 교회는 그저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반해, 지금은 오히려 자신이 교회를 섬기며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문 집사는 매주 4일 이상 김해에 위치한 집에서 교회로 나오는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 길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한다.

"김해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는 길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먼 길을 수요일에는 수요예배와 순장반, 목요일에는 사역반, 금요일에는 다락방,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 때문에 일주일에 4번 이상 오가지요. 하지만 저와 함께 순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아내와 그 길을 오가면서 집안의 문제나 교회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부부의 정도 더 깊어지고, 서로에게 좋은 충고와 위로를 할 수 있어서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3기 제자훈련을 수료한 문영석 집사는 제자훈련 수료식 때 대표로 간증을 했다. 그때 그는 제자훈련에 대한 자신의 소감과 각오를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훈련받기 전이나 훈련받는 동안보다도 훈련받고 난 후의 삶이 더 능력있고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저도 제게 주신 사명을 따라 교회 안에서 진정한 섬김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 개인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